



MZ世代の登場と 変わりゆく韓国社会

11
June
2022

基調講演

原州漢拏大学校

鄭 大珍

| ちょんてじん

パネリスト

名古屋外国語大学

毎日新聞

福島みのり
堀山 明子

| ふくしまみのり

| ほりやまあきこ

コメント

ソウル支部会長・建国大学校

日本支部会長・立命館大学

金 成珉
鄭 雅英

| きんそんみん

| ちょんあよん

2022年3月に実施された韓国大統領選挙では、MZ世代と呼ばれる20代30代の青年層の主張が注目され、選挙結果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ました。深刻化する経済格差に加え、フェミニズムや民族統一問題などをめぐる世代間、ジェンダー間の対立・亀裂も浮き彫りになっています。こうした社会の変容は、今後の韓国の政局や南北関係、日韓関係など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でしょうか。韓日の専門家をお招きし、今後の朝鮮半島を占う議論を交わします。

https://isks.org/

日 時 | 2022年 6月 11日(土) 13時30分

開催方法 | 会場 + オンライン - Zoom

会 場 | 大阪教育大学天王寺キャンパス
西館 E教室・F教室

📍 大阪市天王寺区南河堀町4-88
JR寺田町駅下車、徒歩約5分



ZOOM URL

https://us06web.zoom.us/j/84838625666?pwd=c0MxTnNaNjhaaUprYVlEVWk5qR3dUZz09

プログラム

参加費無料

同時通訳

10:00 自由論題

・朝窓コンツェルンの評価に関する研究史的考察
—書籍を中心に—

任正燦(朝鮮大学校)

・核革命以後における緩衝システム理論の模索

—北朝鮮の核兵器高度化を事例として—崔正勲(立命館大学)

・日本における朝鮮語教科書の変遷

—音韻・音声的項目を中心に—

平田絵末(大谷大学)

12:45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総会

13:30 シンポジウム

『MZ世代の登場と変わりゆく韓国社会』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 第 26 回学術大会 プログラム

10:00-11:30 【第一部】自由論題 司会：金 友子さん（立命館大学）

1. 朝室コンツェルンの評価に関する研究史的考察 ―書籍を中心に― p. 5
任 正燮さん（朝鮮大学校）
2. 核革命以後における緩衝システム理論の模索 ―北朝鮮の核兵器高度化を事例として― p. 7
崔 正勲さん（立命館大学）
3. 日本における朝鮮語教科書の変遷 ―音韻・音声的項目を中心に― p.13
平田 絵未さん（大谷大学）

12:45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 総会

13:30-17:00 【第二部】公開シンポジウム p.18

『MZ 世代の登場と変わりゆく韓国社会』

2022 年 3 月に行われた韓国第 20 代大統領選挙をめぐって韓国中で繰り広げられた論戦と社会の反応は、「ろうそく革命」の熱気に満ち溢れた中で実施された 5 年前の第 19 代選挙時のそれとは、さまざまな点でかなり多くの相違点を見せている。

「進歩対保守」という伝統的な政治志向/政党間の対立状況が全くなくなったわけではないが、そうした政治的二項対立の観点だけでは収まり切れない論点の広がりや、現代韓国社会の変容を象徴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とりわけ、MZ 世代と呼ばれる 20 代 30 代の若い世代が、社会的な議論の場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ようになった点は刮目に値する。5 年前の大統領選挙の時でさえ、彼らは進歩派を支持する中核層とみなされていた。しかし現在の彼ら MZ 世代は、進歩政権下でも実現できず一層深刻さを増した韓国社会の過剰な競争主義、過酷な進学・就職競争に疲れ果て、拡大する社会・経済格差に将来の生活を見通せず、それが世界的にもまれにみる出産率の低下を招くなど、すでに彼らが「進歩」の名に込めてきた期待感・信頼感は喪失されつつあるようだ。それは社会・経済政策で失点を重ねながらも、おごりともとれる発言を繰り返した進歩派政権与党への反発もあるだろう。

しかしより深刻なことは、多くの社会調査が明らかにしているように、南北の民族統一に反対/無関心と答える者の比率が MZ 世代においては半数強を占め、さらに MZ 世代の中でも Me Too 運動やフェミニズム意識の拡大に露骨な拒否感を示す男性層の存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点である。寛容性が失われた社会の中で、世代や性別間に深い対立や分断を新たに招きつつあるのではないかと。以上の問題点については、「若者の保守化」という見方が、すっかり定着した日本社会との比較検討も意味のあることだろう。

今年度学術大会シンポジウムでは、現在進行形で変わりゆく韓国の社会状況を、政治・政党議論のレベルを超えた、より深層で把握することを課題とする。現代韓国社会に詳しい日韓の論者をお招きし、それぞれの発言を契機として会員全体における活発な議論を期待したい。

基調講演	鄭 大珍 さん 原州漢拏大学校	p.19
パネリスト講演	福島 みのり さん 名古屋外国語大学 堀山 明子 さん 毎日新聞	p.27 p.30
総括コメント	金 成珉 さん ソウル支部会長、建国大学校	
コメント/司会	鄭 雅英 さん 日本支部会長・立命館大学	

略 歴

鄭 大珍 | ちょん てじん

韓国 原州漢拏大学校グローバルビジネス学部・東北アジア経済研究院教授。国立統一教育院江原統一教育センター事務所長。韓平政策研究所平和センター長。延世大学校統一学博士。

南北関係・外交安保ニュースコメンテーター（KBS、MBC、SBS、YTN、連合ニュース TV など）。主な共著に『韓半島スケッチ北(ブック)』、『公正な国際秩序と韓半島の持続可能な平和』など。主要論文に「南北韓統合の法的争点」、「北韓の外国人投資法制と行政訴訟導入」、「統一教育法制の変化と地方政府の役割」など。

福島 みのり | ふくしま みのり

名古屋外国語大学現代国際学部准教授。早稲田大学招聘研究員。現代韓国朝鮮学会理事。韓国延世大学大学院社会科学博士課程修了（社会学博士）。

専門は世代・ジェンダーの日韓比較／韓国の大衆文化、若者論、現代韓国社会論など。

共著に『現代韓国を知るための60章』（明石書店 2014）。主要論文に「世代論から読み解く韓国若者論の変容－新世代・88万ウオン世代・N放世代を中心に－」（特集論文「世代から見えてくる韓国」（『現代韓国朝鮮研究』第20号、2020年）、「『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に熱狂する日本の読者のその後（韓国語）」（『文化科学』2020年夏号）など。

堀山明子 | ほりやま あきこ

毎日新聞外信部デスク。

1980年代末に韓国・梨花女子大に1年留学し、女性学を学ぶ。ソウル特派員として2度赴任（2004～2009年、2018～2021年）。2020年には欧米を含む外信記者が所属するソウル外信記者クラブ会長を務める。フェミニズムや韓国社会の変化を記したコラム「韓流パラダイム」を毎日新聞のウェブサイトに掲載中（<https://mainichi.jp/premier/politics/ch190742238i/>）

鄭 雅英 | ちょん あよん

立命館大学経営学部教授。1958年日本生まれの在日コリアン2世。早稲田大学卒業、大阪市立大学院経済学研究科にて博士学位（経済学）取得。

中国朝鮮族のナショナリティ・エスニシティ、解放後在日韓国人学生の学生運動史などを研究。今大会まで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代表。

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 제 26 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10:00-11:30 【제 1 부】 자유논제 사회 : 김우자 (리쓰메이칸대학)

1. 조선질소비료 콘체른 평가에 관한 연구사적 고찰-서적을 중심으로- p. 5
임정혁 (조선대학교)
2. 핵 혁명 이후 완충체계 이론의 모색-북조선 핵무기 고도화를 사례로- p. 7
최정훈 (리쓰메이칸대학)
3. 일본 내 조선어 교과서의 변천-음운 및 음성적 항목을 중심으로- p.13
히라타 에미 (오타니대학)

12:45 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 총회

13:30-17:00 【제 2 부】 공개 심포지엄 p.18

『MZ 세대의 등장과 변해가는 한국사회』

2022 년 3 월에 있었던 대한민국 제 20 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한민국 안에서의 논쟁과 사회의 반응은 ‘촛불혁명’의 뜨거운 열기 속에 이뤄진 5 년 전의 제 19 대 대통령 선거 때와 여러 의미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진보 대 보수’라는 전통적인 정치 지향과 정당 간의 대립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정치적 이항대립의 관점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논점의 확대가 현대 한국사회의 변용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MZ 세대로 불리는 20, 30 대의 젊은 세대가 사회적 논의의 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5 년 전의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그들은 진보파를 지향하는 핵심층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MZ 세대는 진보정권 하에서 더욱 심화된 한국사회의 과도한 경쟁주의, 그리고 지나치게 가혹한 진학과 취업 경쟁에 몹시 지쳤고 확대하는 사회, 경제 격차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가 전세계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힘든 현격한 출생률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 이미 그들의 ‘진보’를 향한 기대감과 신뢰감은 상실되어 버린 것 같다. 사회, 경제 정책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선심성 발언을 반복하는 진보 정권 여당에 대한 반발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회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남북 민족 통일에 반대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MZ 세대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나아가 MZ 세대 안에서도 미투운동과 페미니즘 의식의 확대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출하는 남성층의 존재 양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관용을 상실한 사회 안에서 세대와 성별 간의 깊은 대립과 분단을 새로이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서 언급한 문제점에 관해서 ‘청년의 보수화’라는 견해가 완전히 정착한 일본사회와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올해 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는 현재진행형으로 변해가는 한국의 사회 상황을 정치와 정당 논의의 수준을 넘어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현대 한국사회에 정통한 일본과 한국 학자들의 발제를 계기로 전체 회원 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기조강연	정대진 원주한라대학교	p.19
패널리스트 강연	후쿠시마 미노리 나고야외국어대학	p.27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신문	p.30
총괄적 코멘트	김성민 서울지회 회장 / 건국대학교	
코멘트 및 사회	정아영 일본지부 회장 / 리쓰메이칸대학	

정 대 진

원주 한라대 교수(글로벌비즈니스학부·동북아경제연구원). 국립통일교육원 강원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 연세대 통일학 박사. 남북관계·외교안보 뉴스 패널리스트(KBS, MBC, SBS, YTN, 연합뉴스 TV 등). 주요공저 『한반도스케치北』, 『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주요논문 『남북한 통합의 법적쟁점』,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와 행정소송 도입』, 『통일교육법제 변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

후쿠시마 미노리

나고야외국어대학 현대국제학부 준교수. 와세다대학 초빙연구원. 현대한국조선학회 이사. 연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사회학 박사).

전문분야는 세대, 젠더 한일비교 및 한국 대중문화, 청년론, 현대한국사회론 등. 공저로 『현대 한국을 알기 위한 60 장』(明石書店 2014), 주요 논문으로 「세대론으로 읽어내는 한국 청년론의 변용-신세대, 88 만원세대, N 포세대를 중심으로-」(특집논문 「세대로 보는 한국」(『現代韓國朝鮮研究』20, 2020)*이상 일본어, 「『82 년생 김지영』에 열광한 일본 독자들,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문화과학』2020 년 여름호)등이 있다.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신문 외신부 데스크

1980 년대 말에 이화여대에 1 년 유학하며 여성학을 배웠다. 서울 특파원으로 2 번 부임(2004 ~ 2009 년, 2018 ~ 2021 년). 2020 년에는 구미를 포함한 외신기자가 소속된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을 역임했다. 페미니즘 및 한국사회 변화를 기록한 칼럼 「한류 패러다임」을 마이니치 신문 웹사이트에서 연재중(일본어). (<https://mainichi.jp/premier/politics/ch190742238i/>).

정 아 영

리쓰메이칸대학 경영학부 교수. 1958 년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코리안 2 세. 와세다대학 졸업. 오사카시립대학 경제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 취득(경제학).

조선족의 내셔널리티·에스니시티, 해방 후 재일한국인 학생의 학생운동사 등을 연구. 이번 대회까지 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 대표.